

혁신기술에 로컬자원 더하니… 지속가능 성장모델 우뚝

함께 크는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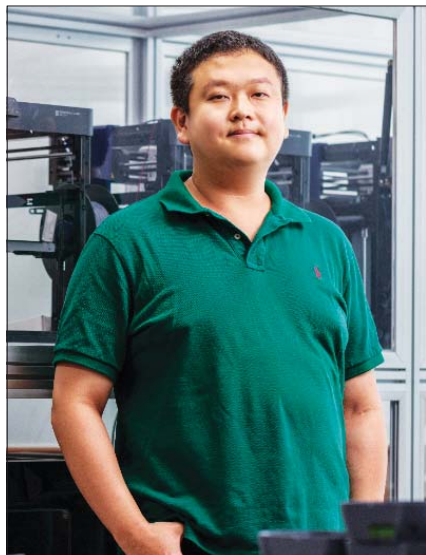
청정에너지 등 지역산업에 창업 결합
광주 AI축산, 제주선 감귤어묵 주목
특화 산업 품은 로컬 스타트업 성장
지역 자원+기술 접목, 정부도 뒷받침
해외 진출 성과 CES·북미 협업 진행

광주와 제주에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을 넘어, 자생력 있는 산업 주체로 자리매김한 이들 기업은 로컬의 가능성과 중앙정부 정책이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자원과 산업적 강점,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술 중심의 로컬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미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테크 스타트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트플로우, 와이제이컴퍼니, 제주로부터 등이다.

우선 '인트플로우'는 광주 AI융합지구 내에서 설립된 스마트축산 기술 기업이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엠티팜'을 통해 가축의 행동·건강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체중 측정 및 성장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양돈 농가에 특화된 '엠티팜 카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 /인트플로우

운트'와 '엠티팜 그로우'는 각각 비접촉 방식의 체중 측정과 성장 관리 기능을 제공해 작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영상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솔루션은 작업자의 수고를 줄이고, 동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트플로우는 광주시의 'AI 특화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받아 실증테스트와 사업화를 진행했으며, G-유니콘 육성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양돈 기업들과 기술 제휴 협의를 시작했고, CES 2023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 미국 내 10대 양돈기업 중 하나인 '카르타고 배터라네리 서비스(Carthago Veterinary Service)'와는 협업



와이제이컴퍼니가 출시한 '프리미엄 어묵'. /와이제이컴퍼니

을 통해 판로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는 "지역 농업과 AI를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기술 기반 지역 창업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로컬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감귤부산물, 생선 등의 제주 특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기업이 '와이제이컴퍼니'다. 이 기업은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어묵 브랜드를 론칭하며, 지역 식자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하고 있다.

와이제이컴퍼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선정돼 상품 기획, 브랜딩, 판로 개척

등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장 중이다.

김봉진 와이제이컴퍼니 대표는 "제주의 자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브랜드 자산"이라며 "지역의 가치를 수도권과 글로벌 시장에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로부터'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단순한 로컬 유통을 넘어, 생산자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과 콘텐츠 기반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의 계절, 기후, 사람 이야기를 담은 '로컬 농산물 큐레이션 박스'는 정기구독 형태로 운영한다. 또 SNS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과 소통하고 있다. 이 기업 역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팁스(TIPS)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기술', '지역 자원', 그리고 '정부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라며 "정부의 지역 창업 지원 정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창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4개 권역별 창업 허브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재편할 예정이다. 광주와 제주는 AI, 청정에너지, 관광 산업 등 전략 산업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기술·정책·자원 '삼박자' 글로벌 투자 성과 가시화

특화산업 품은 로컬 창업, 현장서 성과
AI·관광·에너지기반 모델, 해외 주목

광주와 제주를 거점으로 한 AI, 청정에너지, 관광 융합 콘텐츠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기술 창업이 주류를 기준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광주, AI 중심 창업도시로 투자 유치 성과 주도

광주광역시시는 '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하고 함께 인공지능 창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광주 창업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35개사가 총 52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베슬AI는 에이벤처스로부터 158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스페이스비전AI는 바인벤처스와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켜 AI 기반 디지털 광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티에이치, 리셀 등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총 322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박형주 광주시 AI반도체과장은 "광주는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 성과는 광주시가 추진한 AI 중심 산업 구조 재편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스타트업 240개 참여하는 광주창업페스티벌 /광주시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 청정 산업 기반 기술 창업 확대

제주는 '청정헬스케어타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18억 원을 바탕으로 후속 투자 유치 173억 원을 이끌어내며 자립형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에너지 융합 콘텐츠 기업인 디스커버제주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콘텐츠로 구현해 관광 스타트업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레드로켓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빛나 기자

수도권 편중 해소… 기술창업 생태계 고도화

현장 실증 이어 투자 유치도 활발
국내외 관심 속 사업화 성과 확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된 각종 지원 인프라가 현지 자원·기술력과 결합되면서 광주와 제주 내의 창업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다.

23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발표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도권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산업특화 기반을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AI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축으로 스타트업 유치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AI창업캠프 등을 거점으로, 의료, 모빌리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해 기술기반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제주는 청정에너지, 바이오, 관광융합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청정헬스케어타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에너지자립형 스타트업, 스마트팜, 건강식품, 디지털 관광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활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하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창업 전용 펀드 조성 ▲거점 창업허브 구축 ▲규제 특례 적용 등을 병행 지원 중이다. 광주는 'AI특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분야에서 실증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제주는 '탄소없는 섬 2030' 비전 하에 친환경 스타트업의 실증 실험장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광역시 AI반도체과 관계자는 "광주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정책-산업-인재의 삼각축이 견고해지면서 지역 스타트업들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본부 관계자는 "제주는 청정 자연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융합한 지속가능 산업에 적합한 입지"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